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소개

본 협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우유 생산비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을 연구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同학회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다시 1개월간 현지 조사기간을 마친 다음 지난 11월에 본 협회에 그 결과를 알려왔다. 전국의 젖소 사육 규모별 사육농가수를 표본 농가 선정에 위한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을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하였는데, 청취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그 조사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 우유생산비 산정방식과 가격정책의 평가
- 낙농경영의 실태와 우유생산비 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 우유가격 정책상 발전방향의 연구 등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 현행 우유생산비 산정방식에 타당성이 있는가?
- 낙농가의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육규모와 우유생산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우유생산비

본 조사기간중 우유생산비는 현행 313원보다 5.13%(16.05원)가 높은 329.05원으로 나타났다. 사육규모가 소규모일수록 우유생산비는 더 크게 나타났는데 1~5두 규모는 347.88원, 6~10두 규모는 345.36원, 11~15두 규모는 320.03원, 16~20두 규모는 315.71원, 21~25두 규모는 297.20원, 26~30두 규모는 320.25, 그리고 31두 이상의 규모의 농가 우유생산비는 293.15원으로써 평균 생산비가 329.05원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우유가(牛乳價)로는 표본 농가의 35.5%만이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64.5%에 해당하는 농가는 생산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평균 생산비가 현행보다 10.7%(33.62원)나 높은 346.62원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낙농가의 70%가 10두 미만의 사육규모이며 전국 낙농가의 평균 사육두수가 9.3두(1983년12월말 현재)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낙농가가 현행 우유가로는 생산활동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다. 더우기 조사기간이 '83년 8월부터 '84년 7월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84년 10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낙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악화되어있으며조

사태상 기간인 1년간 우리나라 낙농가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우유생산비 산정 기준 및 방식검토

가. 가축비(경산우 상각비)

1) 젖소(경산우)의 내용년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6년」은 「4.06년」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보다 2년이 단축됨에 따라 28.59원의 생산비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상각비 산출에 적용되는 젖소의 폐기가격(잔존가격)은 쇠고기기준으로 초산우 평가액의 41.3% 즉 약 40%의 잔존가격이 인정되었다. (현행 60%)

나. 건물 및 대농구(大農具) 상각비

건물 및 대농구의 잔존가격은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에는 지역적 여건으로 처분비용이 오히려 소비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잔존가격 5~10%를 0%로 하였다.

다. 자가노임

농촌 일고임금과 연간 자가노동일수를 산출하고 남녀구성은 각각 57%, 43%로 하였는데 현행 고용노임의 절반을 감안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자가노임이 평가된다.

라. 부산물 평가액(송아지 생산액)

송아지 생산액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번식률은 현행 85%(14.12개월)에서 82.4%(14.56개월)로 밝혀졌다. 여기에 폐사 및 유산으로 손실된 송아지가 10%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송아지의 암수 평균가격이 10% 증감됨에 따라 생산비는 14.30원이 증감된다.

마. 경영자 보수

농업경영자도 다른 직종의 정상적인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실현시켜야 농업종사자의 경제적 지위가 보호된다는 이론으로 경영자 보수를 생산비의 7%수준으로 제상하여 우유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3. 건의사항

가. 우유생산비 산정방식의 개정

1) 가축비중 내용년수를 4년으로 하고 잔존가격은 초산우 평가액의 40%수준으로 한다.

2) 건물 및 대농구 상각비중 내용년수를 건물의 경우 10년 단축하고 잔존가격은 모두 0%로 한다.

3) 토지평가액은 전국평균가격으로 한다.

4) 유동자본액은 년12회전으로 본다.

5) 경영자보수는 생산비의 7%로 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부산물 평가액중 번식률은 82.4%(14.56개월)로 한다.

나. 관련 정책사항의 건의

1) 우유생산비 산정의 지정통계화로 공공연구기관에서 매 4~5년마다 조사 실시한다.

2) 낙농업의 경영구조개선

○ 정부는 생산기반 정비의 투융자확대, 세계 등 재정적수단으로 경영개선 유도

○ 농가는 사양관리 개선과 조사료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

3) 수급조절을 위한 계절별 차등 우유가격제를 도입한다.

4) 유질에 의한 차등가격제를 실시한다.

5) 우유생산자 가격을 매년 경정한다.

본 조사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원유생산비를 1984년 11월초 현재 기준으로 조사기간 이후 인상요인을 적용하여 산정된 원유생산비는 359.76원으로서 현행원유가 313원보다 14.9%가 높은 수준이었다.